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7호 【루계 제23049호】 주체99(2010)년 4월 7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인류의 끝없는 경모와 신뢰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세계의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은 희세의 위인에 대한 높은 경모와 신뢰의 마음을 안고 올해 태양절기념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얼마전 태양절기념 도이췰란드준비위원회가 베를린에서 결성되였는가 하면 체스꼬 쁘라하에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독보회와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5대륙방방곡곡에서 태양절기념준비가 다그쳐지고있다. 태양절기념준비위원회 결성식장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김일성! 김일성!》이라고 목청껏 부르는 사람들로 흥성거리고있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신뢰의 장엄한 화폭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길이 빛난다.

지난해에 있은 사실들을 놓고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빼루 우안까벨리까주 따야까하시 빨빠스구역청과 에꽈도르 꼬또빡씨주에서 명예시민칭호를, 제7차 중국화초박람회에서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최우수전시품상과 상장을 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증정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회고모임, 토론회, 강연회, 독보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 1 300여차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핀란드만경대위원회를 비롯하여 근 60개 나라와 지역에 준비위원회 결성.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경모와 신뢰심을 반영한 감동깊은 화폭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세계 수많은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이후 지난 15년간 그이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한 외국인들의 수는 39만 3 000여명을 헤아린다.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 저명한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열렬히 흠모하는 자기들의 심정을 담아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지난해 평양에서는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71(1982)년에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때로부터 주체96(2007)년까지 25차에 걸쳐 진행된 축전에 연 1 000여개 나라의 1 700여개 예술단체에서 2 000여명의 국제국내콩클수상자들과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을 비롯한 1만 8 000여명의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이 되는 해의 뜻깊은 4월에 일조음악예술교류회대표단과 빼루 《띠엠뽀 누에보》예술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른 때로부터 2007년까지 축전무대들에서 이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퍼진 회수는 1 000여회에 달한다.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은 또한 축전들에서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꽃피네》, 《수령님 모신 영예 끝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길》을 비롯한 조선노래들과 자기들이 창작한 노래들인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노래》, 《인류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체의 태양은 영원히 빛나리》 등과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칭송하고 그이를 만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려는 의지를 담은 다채로운 곡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5대륙의 연 800여개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의 공연을 34차례에 걸쳐 보아주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으며 그들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피눈물의 해 1994년 7월이후에도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였다. 1995년 태양절에는 중국예술단, 로씨야민속가무단, 로씨야볼쇼이관현악단, 이딸리아예술단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제1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절절하게 불렀다. 그해부터 2007년까지 연 500여개 나라의 870여개 예술단체와 8 000여명의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다.

외국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은 백승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비낀 공연종목들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들은 공훈국가합창단이 명작으로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열정적으로 배워가지고 제15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훌륭히 부름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 로씨야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축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숙어머님》 등 곡목들을 통하여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칭송하여 창작형상한 종목들은 수백편에 달한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수많은 송가작품들로 공연무대들을 빛나게 장식한 바로 여기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다른 국제적예술축전과 구별되는 근본특징과 거대한 견인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시대와 력사가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것이다. 그이께서 주체15(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작성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주체83(1994)년 7월까지의 기간에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은 무려 1만 800여건이나 된다.

에짚트신문 《알 마싸이야》는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로작은 건수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뿐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심오하며 풍부하다, 그이의 사상리론은 오늘도 거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을 발휘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출판보도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출판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최근시기 로씨야,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새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110여개 나라에서 60여개의 민족어로 2 670만부 출판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광범히 출판보급하기 위한 국제적움직임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을 따라배우기 위한 연구조직들이 계속 결성되고있다. 2003년에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과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지부조직들, 방글라데슈 호끼리아 자미아주체연구소가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아시아지역에서 많은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였다. 2005년에는 인디아선군정치연구소조와 인디아 우따르 쁘라데쉬주 서부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와 우크라이나《선군의 보검》협회, 베네수엘라선군위원회, 8개의 나라와 지역의 10개 단체들을 망라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등이 결성되였다. 2006년에는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우크라이나기자, 문화인들의 〈주체의 태양〉 김정일주의연구전국협회》, 《전로 김일성주의연구 및 보급협회》가 결성된것을 비롯하여 각이한 인사들을 망라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였다. 2007년에도 메히꼬, 나이제리아, 바베이도즈, 우간다, 민주꽁고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다.

영국신문 《에이쉬언 타임스》의 한 책임일군은 이렇게 웨친바 있다.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자연계가 존재하듯이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영생하고계시여 세계 진보적인류의 오늘과 래일이 있다. 그이께서는 태양의 빛과 같이 광휘로운 주체사상의 빛발로 력사에 의해 희롱당하여온 인간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지켜주시였으며 태양의 열과 같이 한없이 뜨거운 인간사랑으로 사람들의 리상과 행복의 꿈을 현실로 펼쳐주시였다. 이 세상의 위인과 명인들을 천으로, 만으로 합친다해도 인류를 위해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각하의 위대성에는 결코 비길수 없다.》

수령은 그가 창시한 위대한 사상과 더불어 영생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태양은 영원하다.

만민의 끝없는 경모와 신뢰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력사와 더불어 절세의 위인에 대한 칭송의 대하는 끝없이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손

4월의 명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

자강도당위원회에서

자강도당위원회에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자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떨쳐나서게 해야 하며 여기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정치사업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공동사설과업관철로 들끓는 중요단위들에 나가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하여 위원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 하여 올해에 도안의 수십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며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대폭 늘일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급 당조직들에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적극 벌려 그들모두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작전과 지휘를 잘하도록 하고있다.

도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장강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가 예술공연과 경제선동을 기동성있게 벌리였으며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도 강계편직공장과 강계은하피복공장 등 경공업공장들에 달려나가 창작활동을 벌리면서 당원들과 로동자들속에서 시랑송발표회와 벽시전시회를 진행하여 대중을 증산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도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강사들과 도미술창작사의 창작가들은 9월방직공장, 강계포도술공장에 달려나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강의도 진행하고 혁신자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소묘전시회와 전투속보발간 등을 진행하여 로동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강계, 만포시를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정신력을 발동시키는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초산, 우시, 전천군을 비롯한 모든 군당위원회들에서는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지방공업공장들의 기술개건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장강, 성간, 화평, 위원군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고있다.

강계청년발전소, 희천정밀기계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전력, 기계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도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기술개건과 생산활성화의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몫하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구호, 선전화들과 함께 단위들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속보들을 게시하여 온 도가 총공세의 분위기로 들끓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공로혁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력량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얼마전 공장에 자원진출한 20여명의 녀성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참전자로서 값높은 삶을 빛내일 포부와 지향을 안고 초급단체의 전체 녀맹원들과 함께 공장으로 진출한 삼봉동초급녀맹위원회 제7초급단체위원장이였던 리명화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이 벅찬 시대에 한가정의 주부로만이 아니라 어머니조국의 장한 딸로 살고싶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가슴속에서만 타오르는 맹세이겠는가.

락랑구역 충성2동초급녀맹위원회 녀맹원들을 비롯하여 평양시와 함경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등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으로 적극 진출하고있다.

가혹한 실업과 성별차별로 세계적으로 약 15억명에 달하는 녀성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고 《녀성의 빈궁화》가 국제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는 오늘 내 조국에 펼쳐지고있는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녀성들은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력량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오늘도 우리 녀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노래가 있다.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는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의 사랑도, 가정의 행복도 아낌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녀성들의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력사에 류례없던 고난의 나날에 조국청사에 새겨진 우리 녀성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이였던가.

개인의 안일과 향락보다 당과 혁명, 조국을 먼저 생각할줄 아는 녀성혁명가들이 있어 우리 혁명은 더욱 줄기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혁명은 한쪽수레바퀴로만 전진할수 없다. 력사를 창조하고 시대를 떠미는 억세인 힘—이것이 선군조선녀성들이다.

△녀성들의 모습에 나라의 활력이 비끼고 시대의 향기가 넘친다.

선군시대는 우리 녀성들의 정의롭고 강의한 모습, 씩씩하고 용감하며 슬기로운 기상으로 하여 더욱더 약동하는 시대로 빛난다.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답게 조국보위초소마다에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군관의 안해들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빛내는 녀성과학자, 녀성체육인들,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녀성혁신자들, 지원자만이 아닌 강성대국건설의 참전자가 될 포부를 안고 새로운 혁명초소들에로 적극 진출하고있는 녀맹원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고난을 헤쳐온 길도 긍지스럽지만 강성대국대문을 열어제껴야 할 오늘의 투쟁은 더욱 보람차다.

래일을 굳게 믿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빛내여가는 녀성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초소, 모든 단위에서 투쟁과 창조의 활력, 생활의 향기를 힘있게 뿜어주고있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그날은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여러가지 지은옷생산을 늘인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아래 생산단위들에서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경사로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더욱 짜고들고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불러일으켜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생산단위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보통강피복공장, 문수옷공장, 선교직물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이 지난 2월에 분기계획을 훨씬 앞당겨 완수한데 이어 관리국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맡겨진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만경대피복공장, 평양피복공장, 평양창광옷공장, 평양어린이옷공장에서는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매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지은옷의 품종을 늘이고 맵시있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관리국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지은옷을 맵시있게 만들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종을 확대하고 그 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직물공장들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1.4분기에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 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각지 닭공장들에서

평양시안의 닭공장들과 흥주, 사리원, 신의주닭공장을 비롯한 각지 닭공장들에서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돼지공장과 닭공장, 오리공장같은것을 잘 꾸리고 고기와 알을 많이 생산하여 로동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평양시안의 만경대, 서포닭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룡성닭공장에서는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감으로써 고기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자강도와 황해북도, 평안북도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닭공장들에서도 1.4분기에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흥주닭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사리원닭공장에서는 먹이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관리공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정상화하여 그들의 사양관리수준을 높여주었다. 공장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생산공정들이 보다 큰 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고기, 알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신의주닭공장에서도 축산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 단백먹이와 첨가제를 자체로 해결하여 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구성닭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축산물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각지 현대화된 닭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질좋은 애자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경성애자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다까르 출발

【다까르 4월 5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세네갈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5일 다까르를 출발하였다.

최창식보건상, 김형준 외무성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출발하였다.

비행장국기게양대들에는 조선과 세네갈기발이 나붓기고있었다.

김영남동지와 일행을 싸다 디아이에 세네갈공화국 해외동포상 등 관계자들과 리경선 세네갈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참관기

다함없는 축원속에 빛나는 태양의 력사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찾아서 (1)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혁명의 성지 만경대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쳐흐른다.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드높은 결의안고 조국의 천리방선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저 멀리 대륙과 대양을 넘어 찾아온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주체의 진리로 자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얼마전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았던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만경대혁명사적관을 돌아보았다.

강사 송향춘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사적관 1호실에 들어선 참관자들은 정면에 정중히 모셔진 대형전광사진 《꽃피는 4월의 만경대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르며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한없이 인자하신 태양의 미소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해주시며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모심으로써 지난날 사대와 망국으로 흘러온 이 나라의 근대사에 종지부를 찍고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이 된 참다운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웠으며 자주시대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온갖 꽃 만발하는 4월의 봄날과 더불어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넘쳐있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우리 민족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시대, 주체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였다고 감동깊이 이야기하였다.

2호실에는 만경대에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린 그날로부터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풍을 꿋꿋이 이어오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격침시키는 투쟁의 앞장에 서시였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의 투쟁자료들을 비롯하여 만경대혁명일가의 대를 굳건히 세워놓으신 증조부모님들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강사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은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 견결한 혁명가의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선생님의 투쟁업적과 관련한 내용들도 자료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우리는 2호실에 전시된 여러 사적자료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만경대혁명일가야말로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참으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라는데 대하여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사적관 3호실에 들어섰다.

3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시던 나날 애국적인 가정의 혈통을 이으시여 절세의 위인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품격과 자질을 갖추어나가신 내용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강사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뛰여난 천품을 지니신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년시절부터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탄을 불러일으키시였다고 하면서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들려주었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벌써 당시 사회앞에 나섰던 근본문제였던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쓰시였고 사물현상에 대한 비상한 탐구와 관찰력으로 해당 문제의 본질과 작용원리를 밝혀내신 위대한 수령님은 벌써 그 시절부터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나신 《해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모님들로부터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발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3. 1인민봉기와 관련한 사적내용이 전시되여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주체8 (1919) 년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전민족적인 3. 1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된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이 마침내 독립만세를 웨치며 화산처럼 분출하였던것이다.

마을인민들과 함께 시위대렬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경대에서 보통문앞에까지 가시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시였다.

유년시절에 3. 1인민봉기에 참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외세의 총칼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힘을 처음으로 직접 체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 1인민봉기에 참가하셨던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비운의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세계만방에 울려가던 독립만세소리는 자신으로 하여금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하였다고 하시며 3. 1인민봉기는 자신을 인민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강사로부터 이런 해설을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한평생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정신적풍모가 바로 만경대의 유년시절에 그 뿌리를 두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사적관 4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력적인 탐구와 실천활동, 비참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10대의 그 시절 혁명의 길에 나서신데 대한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경대를 떠나시여 이국땅에서 생활하시는 나날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을 뼈아프게 체험하시면서 소학교시절에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 애국명장들의 전기는 물론 사회정치도서들과 신문, 잡지들을 읽으시며 선진사상을 탐구하시였다.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에 대한 해설을 깊은 감동속에 들으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던 나날들을 되새기던 참관자들은 전자사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사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로정도가 새겨져있었다.

조선에서 태여난 남아라면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뜻을 받드시고 가야 할 천리중 500리이상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천고의 수림을 12살의 어리신 나이에 단신으로 헤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이것은 《지원》의 원대한 뜻을 지니시고 아드님의 성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였으며 참다운 조국애와 강의한 의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걸으실수 있는 혁명의 천리길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에 짓눌린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시며 만경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칠골의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나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시고 조국의 숨막힌 현실을 뼈아프게 체험하시면서 나라의 독립은 오직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할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시였다.

그러던 주체14 (1925) 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시였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시여 우리 민족의 자유와 존엄을 유린하는 흉악한 교살자이며 침략자, 략탈자인 일제와는 사생결단으로 싸워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시며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시였다.

사나운 눈보라 휘몰아치는 험준한 산발들을 넘고넘어 압록강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중한 추억이 어린 정든 조국산천을 몇번이나 돌아보시며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결연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강사로부터 이런 해설을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고 하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숭엄한 영상이 뜨겁게 어려왔다.

참으로 흘러온 인류사에는 남다른 생활경위와 인생체험을 통하여 시대와 력사앞에 이름을 남긴 명인으로 성장한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그 시절에 도탄에 빠진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실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신 절세의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결연히 나서신 《광복의 천리길》이 있어 우리 인민은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이 땅우에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고 그 어떤 침략자도 다시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건드릴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혁명의 성지 만경대와 더불어 길이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

만경대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일찌기 어리신 시절부터 나라찾을 원대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김 용 진

사랑으로 이어진 길

뜻깊은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봄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대하마냥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깊은 밤, 이른새벽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진정 그이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낳은 절세의 위인의 애국애족의 한평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하나의 공장, 하나의 거리와 마을을 건설하여도 인민생활에 지장이 있을세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몸소 터전까지 잡아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북도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어느날 깊은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차를 준비하라고 이르시였다.

일군은 급한 일이 생긴줄 알고 달려가 차를 준비시켰다. 이윽하여 숙소를 떠난 승용차는 어둠을 헤가르며 시내의 로동자주택지구쪽으로 달리였다.

승용차가 그곳에 이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창을 내리시며 운전사에게 차를 천천히 몰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도 운전사도 영문을 몰라하는데 그이께서는 문득 차를 세우라고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람새를 가늠해보시면서 바람이 어느쪽으로 쏠리는가를 헤아려보시였다.

이렇게 하시기를 그 몇번…

그이께서는 시간이 퍼그나 지나서야 숙소로 차를 돌리도록 하시였다.

다음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진시건설총계획도에 대한 결론을 주시려고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계획도를 바라보시며 일군들에게 바람부는 방향이 어디인가고 느닷없이 물으시였다. 너무나도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볼뿐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시봉을 드시고 바다쪽에서 로동자주택지구쪽으로 선을 그으시며 바람이 주로 이렇게 불지 않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그렇다고 대답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서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웅장한 공장지구가 안겨왔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청진시건설방향을 돌려야 하겠다고, 송평, 수남지역에 주택을 더 짓지 말고 라남에 짓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모든 사색과 실천의 앞자리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놓으시는 위대한 수령님,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처럼 긍지높은 인민이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청진시건설방향은 달라지게 되였다.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인민의 리상사회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계시여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생활향상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정 순 학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에게 감사전문을 보내였다

다까르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이 와드각하

나는 친선적인 세네갈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아름다운 다까르를 떠나면서 우리 일행을 친절히 맞이하고 극진히 환대하여준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특히 귀국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세네갈독립 5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기회에 성대하게 진행된 《아프리카재생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여 당신들과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귀국방문기간 우리는 당신의 령도밑에 귀국정부와 인민이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에서 거두고있는 성과들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쌍방사이에 있은 여러차례의 접촉들에서 우리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우리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리해와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고 쌍무관계발전을 가일층 추동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선적인 세네갈인민에게 새로운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여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4월 5일

만민의 마음 끝없이 달려오는 태양의 성지 만경대고향집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어머니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친 불멸의 령도

올해에 우리는 당창건 65돐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어머니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세우고있는 당활동의 원칙이다.》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정치생활과 물질문화생활뿐아니라 앞날의 운명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주는 인민의 향도자, 보호자로 건설한다는것이다.

어머니당건설은 혁명적당건설의 본성적요구이며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이 있고 당이 있다. 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그 옹호자라는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당의 전투적위력과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인 당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때 자기의 혁명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는것은 물론 사회주의사회의 국가기관들과 다른 모든 정치조직들도 인민의 복무자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진 독창적인 사상리론이다.

지난 시기에는 당을 주로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조직된 부대로만 본데로부터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관심이 돌려지게 되였다. 일부 사회주의집권당들이 인민의 신뢰를 잃고 붕괴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던 력사의 교훈은 혁명적당의 성격과 본질을 옳게 규정하고 그에 맞게 당건설과 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당의 성격과 본질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리론실천적요구를 통찰하시고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이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집권당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인민의 복무자라는 사상,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활동은 어디까지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되여야 한다는 사상리론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혁명적당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이 구호에는 우리 당의 근본사명과 활동원칙, 투쟁목표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어려운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 당이 인민의 운명을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귀감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의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우리 당은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끝없이 빛내여주는 혁명적당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인민에게 있어서 존엄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그 어떤 지배와 간섭도 받지 않고 자주적인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떳떳하게 사는것이 바로 인민들의 참다운 행복이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그들이 불패의 강국에서 자주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엄높고 권위있는 인민으로 내세우시기 위하여 력사의 온갖 풍파를 과감히 헤쳐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틀어쥐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조국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국가관리를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심단결과 무적필승의 자위적국방력을 지닌 위대한 강국의 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나라를 감히 건드릴수 없고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없게 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을 강대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만천하에 빛내여주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시대와 력사앞에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우리 당은 인민들의 리상을 빛나게 실현시켜주는 진정한 어머니로 칭송받고있다.

당과 대중사이의 관계는 령도하고 령도받는 관계인 동시에 생명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는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신 첫 시기부터 자식의 소원을 헤아려주고 풀어주는 다심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 인민의 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시켜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그 길에서는 어떤 타산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아래 우리 당은 지난해를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변이 난 해,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해로 조국청사에 력력히 아로새길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뜻깊게 장식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앞에는 인민의 모든 행복이 꽃피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철저히 확립된 불패의 당으로 위력떨치고있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철저히 확립된 당만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수 있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 문제를 당건설과 활동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키워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신 조치에도 깃들어있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욱마다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길에서 보여주신 인민적풍모는 모든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귀감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는 언제나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라는 호칭과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이 수없이 많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풍모를 따라배워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고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는 우리 일군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는 놀라운 비약과 혁신이 이룩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을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굳게 믿고 따르고있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들고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당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인민은 당을 영원한 삶의 품으로 여기며 한몸바쳐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을 깨뜨릴 힘은 세상에 없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워야 할것이다.

림 철 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으로 새로운 위훈 창조

◎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에서 ◎

총공세의 불길높이 완공의 날을 앞당긴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가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흥남가스화대상공사가 더욱 활기를 띠고 립체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난해 11월현지지도이후 공사장의 면모는 크게 달라졌다. 대형산소분리기가 우람진 자태를 드러냈는가 하면 가스발생로공정의 집체같은 동체들이 콩크리트구조물사이에 틀지게 자리잡았다. 지붕씌우기가 끝난 저탄장과 압축기실, 화학정수장의 건물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며 나날이 변모되는 공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런가하면 류산계통의 낡은 건물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진 곳에서는 얼마전 청정계통의 압축기들이 들어앉을 건물기초콩크리트치기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과 각 단위 건설자들의 충천한 열의에 의하여 공사장에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릴데 대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1계렬공사를 앞당겨 완공하기 위한 높은 목표밑에 대담한 작전과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건축공사 및 장치물제작전투를 립체적으로 내밀고있다.

전반적인 공정들에서 기본건축공사를 장치물제작 및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리철식, 김현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시공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방도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 단위에서 수백t의 철근을 자체로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건축물들의 골조기둥을 지상에서 생산하기 위한 각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한달 남짓한 기간에 백수십개의 기둥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한데 이어 얼마전 기둥세우기작업을 기본적으로 결속하였다. 이와 함께 함흥화학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과 시공일군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침전지와 기둥보시공에서 수백t의 강재를 절약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였다.

각 시공단위들에서 합리적인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맡은 대상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의 돌격대원들은 현장조건을 잘 리용하여 많은 목재를 절약하면서도 가스발생로의 내화벽돌축조를 진행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요즘 공사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대형산소분리기의 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낸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돌격대원들도 청정계통의 압축기실설비기초콩크리트치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함흥산업건설사업소의 돌격대원들은 건조분쇄공정의 지붕트라스보제작과 조립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 기세로 요즘 건물벽체축조를 다그치기 위한 힘찬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외부망공사와 동력망공사, 침전지공사를 맡은 여러 단위의 돌격대원들도 불리한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맡겨진 공사과제를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기본건축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공사장현지에서 각종 장치물들을 제작, 조립하기 위한 전투도 립체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총중량이 수백t에 달하는 가스발생로와 청정계통의 장치물제작을 1계렬공사완공의 돌파구로 정한 지휘부의 일군들은 면밀한 준비밑에 장치물제작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달려온 수십명의 유능한 제관공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용접의 불보라를 세차게 날리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제관부문의 제관공들은 여러 공정의 덩지큰 장치물제관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가스발생로동체와 청정계통의 탈류탑, 분리탑제작을 맡은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내각과 련관부문과의 련계밑에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경성애자공장 등 수십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가스화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자재보장을 앞세우는데 선차적힘을 넣고 해당 부문 일군들의 도움밑에 강재를 비롯한 중요자재들을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단위들에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만든 대형산소분리기의 부분품들이 공사현장에 도착한것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흥남의 가스화대상설비생산을 맡은 온 나라 도처의 전투장마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흥남의 가스화대상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비료폭포가 쏟아질 그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앞으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가스화대상공사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이 하루하루 눈앞에 다가오고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사의 주인이라는 남다른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전투원들은 대상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더욱 기세충천하여 돌격전의 앞장에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고있다.

이들은 닷새가 걸린다던 대형산소분리기기초공사를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그때는 맵짠 추위가 계속되던 때였다. 산소분리기의 기초공법에 대한 론의로 건설장의 가설건물안에서는 열기띤 토론이 진행되고있었다. 지휘부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기술공법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공방법을 찾아내였다.

다음날 공사는 시작되였다. 아침부터 함박눈은 소리없이 펑펑 쏟아졌다. 그러나 전투원들은 주저없이 떨쳐나섰다. 락원의 로동계급이 만든 대형산소분리기부분품이 곧 도착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누군가의 기쁨에 겨운 목소리가 전투장의 열기를 더한층 북돋아주었다. 용접공들이 용접의 불보라를 날릴 때 한쪽에서는 콩크리트치기전투로 들끓었다.

쏟아지는 함박눈은 온종일 그칠줄 모르고 내리였다. 그러나 이들의 달아오른 심장의 열기는 식힐수 없었다. 이들은 공사기일을 하루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 기초콩크리트치기를 다그쳤다. 부강조국건설에 바쳐가는 이들의 뜨거운 헌신은 산소분리기기초공사를 단 이틀동안에 성과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낳았다.

청정계통의 압축기실기초공사도 만만치 않은 과제였지만 련합기업소의 전투원들은 돌격의 기수가 되여 드센 공격전을 벌리였다.

종전의 낡은 류산계통이 자리잡았던 부지이다보니 기초굴착전투는 참으로 어려웠다. 오래된 콩크리트기초는 너무 굳어 정대가 탕탕 튕겨났고 한m한m 파들어갈수록 물이 차올랐다. 급수직장의 기대공들이 뽐프를 이동해가며 물을 퍼올렸고 전투원들은 발파로 콩크리트구조물을 한쪼각한쪼각 뜯어내며 전진하였다.

교대시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공사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저녁무렵에는 교대와 교대가 겹쳐 건설장은 더욱 세차게 들끓었다. 대기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뽐프설비들이 추위에 가동을 멈추기 시작하였다. 여러명의 전투원들이 저저마다 홰불을 지폈다. 그것으로 얼음버캐가 앉기 시작한 설비들을 하나둘 녹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헌신적인 투쟁기풍으로 하여 공사는 힘있게 진척되여 그처럼 어렵다던 압축기실기초굴착공사를 제기일내에 해제끼는 위훈이 창조되였다.

본사기자 리철옥

단상 흥남의 하루

불과 석달만에 또다시 찾은 공사장이였다. 류산계통의 낡은 건물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집체같은 대형산소분리기와 가스발생로가 자기의 체모를 갖추며 일떠서고있다. 저탄장, 압축기실, 화학정수장 등의 건물들이 우뚝우뚝 일떠서서 이제는 새로운 가스화생산공정의 방대한 규모가 한눈에 안겨온다.

흥분된 마음을 안고 취재에 달라붙은 나는 시간이 감에 따라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보통 열흘 걸린다던 축조작업을 단 하루동안에 해낸 보람이 컸습니다.》, 《우리는 새 공법을 창안하여 가스발생로장치물조립을 10여일이 아니라 단 며칠동안에 해냈습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함흥산업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대한 취재를 이어갈수록 나는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새 공법창조의 능수들을 만날수 있었고 열흘이 하루로, 하루가 시간과 분으로 앞당겨지는 가슴벅찬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비상한 애국의 열정이 총폭발되고 있는 이곳 공사장의 하루는 열흘, 백날을 대신하는 기적의 하루였다.

그렇다. 흥남의 하루는 기적의 하루이다. 이 하루동안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바치는 구슬땀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잴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려는 이들의 불보다 뜨거운 충정과 애국의 열도가 그토록 높기에.

본사기자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흥남가스화대상공사가 빠른 속도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공정의 1계렬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는데서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여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흥남가스화대상설비생산과제를 맡은 성, 중앙기관들과 각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공사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해 분발하여야 한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이번의 설비생산전투가 단순히 기계설비를 만드는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 자각밑에 마음의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달라붙어야 한다.

흥남가스화대상 대형산소분리기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락원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실천적경험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영원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할 때 불가능이란 없으며 어디서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흥남의 건설자들과 가스화대상공사를 함께 책임진다는 각오를 안고 맡겨진 대상설비들을 기한전에 무조건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야 한다.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이 벌어지는 그 어느 일터에서나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부터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에 비약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기술혁신투쟁의 기발을 들고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의창발성을 분출시키는 송풍기, 가속기가 되여야 한다. 기술자들과 현장로동자들의 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 대상설비생산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도들과 작업방법들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흥남가스화대상설비생산과 련관된 단위의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대상설비생산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은 산하공장, 기업소들의 공정별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생산조건을 앞질러 마련해주면서 협동품생산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철강재를 비롯한 중요물동들을 대상설비생산을 맡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 우선적으로 실어보내기 위한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도처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건설장의 《수리개》들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에는 건설장의 《수리개》들로 불리우는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의 전투원들도 있다. 하늘을 치받을듯이 솟아오르고있는 대형산소분리기와 가스발생로계통의 여러 장치물마다에는 이들의 값높은 위훈이 깃들어있다.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온 이들이지만 화학공업의 복잡한 공정들에 대한 장치물조립과 설치작업은 전혀 생소한것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달라붙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격전이 벌어지고있는 벅찬 시대에 삶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려는 열망으로 가슴 불태웠던것이다.

무게가 수십t에 달하는 가스발생로의 부분품들을 수십m 꼭대기에 끌어올려 설치해야 하는 전투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제의 하나였다. 수십t에 달하는 중량물을 들어올릴만 한 설비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권양기를 리용해서라도 무조건 제기일내에 해낼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었다. 아찔한 콩크리트보우에 연공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고 중량물을 안전하게 끌어올릴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결사의 각오를 안고 달라붙은 결과 가스발생로설치작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의 담력과 배짱은 더욱 커져 20여m에 달하는 콩크리트기둥도 지상에서 통채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위훈을 세웠다.

단 며칠만에 여러개의 덩지큰 탕크가 솟아나고 지금은 가스발생로계통의 부분품들이 련이어 우줄우줄 솟구치고있는 구조물우에는 언제나 용감한 《수리개》들이 있다.

아찔한 높이의 구조물우에서 솟는 해, 뜨는 달을 남먼저 맞이하며 이들은 하나하나의 장치물들을 대고조시대의 기념비로 억척같이 세워가고있다.

본사기자

구장탄광기계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이며 오늘의 대고조는 자력갱생의 대고조입니다.》

구장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 탄광설비부속품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공장에서는 탄광들에 필요한 각종 설비부속품과 소공구생산을 늘이는 한편 정대생산도 정상화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정대의 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것이다. 크지 않은 이 공장에서 탄광설비부속품의 생산량과 가지수를 늘이면서 질좋은 정대를 짱짱 생산하여 각지 탄광들에 보내줄수 있게 된것은 대중적기술혁신투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몇년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정대를 자체로 훌륭히 생산해낼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우선 해당 과학연구기관 연구사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 흑색금속연구소의 한 연구사가 새로운 정대생산기술을 실험단계에서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이 흥분된 마음을 안고 연구사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후 능률높은 정대를 생산할것을 목표로 내세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필요한 설비도 하나하나 자체로 해결하였다. 제일 필요한것이 프레스였다. 어느 한 단위에 이 설비가 있다는것을 알고 이들은 그것을 공장에 날라다 실정에 맞게 새롭게 개조하였다.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을 새로운 기술혁신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설비조립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끝내였다.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킨 보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해당한 공정을 꾸리고 시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그만하면 괜찮다고 모두들 기쁨에 넘쳐있을 때에도 일군들은 그에 만족할수 없었다. 자그마한 편차도 없는 질좋은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거듭되는 실패를 무릅쓰고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지새운 창조의 낮과 밤은 얼마인지 모른다. 보람찬 창조의 나날 이들은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였다. 그것은 훌륭한 창조물을 내놓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모두가 최첨단돌파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공장에서는 지배인으로부터 신입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정대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한가지이상씩 내놓기 위한 경쟁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대중의 집체적지혜가 발동된 결과 높은 가공기술을 요구하는 수많은 지구, 장비들이 창안제작되고 프레스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조되였으며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정대생산용심선도 만들어낼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고조의 해인 지난해 150일전투, 100일전투의 나날 공장에서는 질좋은 정대를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줄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오늘 구장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여 탄광설비부속품생산을 늘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더 많은 철강재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전성남 찍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은하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과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은하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은하지도국을 새로 내오게 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지도국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피복가공무역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은하지도국을 성, 중앙기관들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시면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앞장서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감사문은 강조하였다.

감사문은 지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혁명임무수행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강국을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지도국에서는 지난 기간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산을 활성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였으며 최근년간에는 생산을 훨씬 장성시키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감사문은 강조하였다.

감사문은 지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피복공장들과 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지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였으며 수많은 생활필수품들과 원료,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여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 단위에 보내주는 미풍을 발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지도국의 당조직과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으로 일판을 크게 벌리고 생산현장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고 감사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지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혁명임무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6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은하지도국 부국장 김성준, 처장들인 권영애, 리원주, 책임부원 리관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은 기쁨과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경공업혁명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고 그 량과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당면하여 산하 여러 공장들의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경제관리지식과 과학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경공업공장들의 기술개건사업을 다그치며 피복가공기술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집단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게 한 비결

의주군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단의 위력을 최대한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얼마전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의주군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운동의 성과와 생활력은 거기에 군중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

공장에서 높이 세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던 몇해전이였다.

결의목표들은 간단치 않았다.

—대중운동에 모든 종업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이다. 그러자면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이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종업원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비서 박영찬동무는 공장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적표식비부터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의 결심은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후 공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진행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심장을 달구어주는 신념의 구호들을 모자이크로 게시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그 나날에 발휘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충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였다.

혁명사적표식비건립과 신념의 구호들을 게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공장의 종업원들은 누구나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실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종업원들의 비상히 앙양된 정신력이 발동되니 어렵다고 하던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나갔다.

기술개건사업 하나만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당시 공장에서는 기술자문제때문에 애를 먹고있었다. 이때에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들과의 사업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우선 기술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기초식품생산공정을 비롯하여 공장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를 찾기 위하여 초급당일군들이 걸은 길은 그 얼마였던가.

그 과정에 공장에 꼭 필요한 유능한 기술자인 김익수동무도 찾게 되였다. 초급당일군은 그 기술자를 믿어주고 내세워주며 진정을 다 바치였다.

이에 고무된 그는 기초식품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설계를 완성하는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게 되였다.

기계속내에 밝은 초급당비서는 설계가 완성되는데 따라 공무직장의 기술자들과 함께 선반도 돌리고 용접도 하면서 설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갔다. 식료공학기사인 지배인 남기옥동무는 기술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전국각지의 식료공장, 기초식품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생산공정과 설비상태 등을 파악하며 배워왔다.

그러나 덩지가 매우 큰 발효탕크며 제곱기들을 자체로 만든다는것은 간단치 않았다. 물론 전문기계공장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조직에서는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과 기술을 믿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이 사업에 종업원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기 위하여 현상모집도 조직하였다. 그리고 신의주경공업대학 현지학습반운영도 잘하도록 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물을 새로 건설하고 설비를 만들어 설치하는 과정을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모두가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되게 이끌어나갔다. 이렇게 되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누구나 축조도 하고 미장과 용접을 비롯한 모든 일을 척척 맡아해제낄수 있게 되였다.

창조의 나날에 그처럼 어렵다고 하던 덩지가 큰 발효탕크며 제곱기를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기발한 착상으로 만들어 설치하게 되였으며 기초식품생산공정의 무균화, 밀폐성도 실현하게 되였다. 그리고 장생산에 속성발효방법을 받아들여 숙성기일을 훨씬 줄이면서도 그 질을 높이게 하고 적은 열을 가지고도 위생성이 보장된 기초식품을 생산할수 있는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실현하였다. 지금은 기초식품생산공정의 CNC화를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련이어 공장초급당위원회는 감자가루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원심분리기에 의한 건조방법을 받아들여 연료를 쓰지 않으면서 생산을 높이고 새로운 품종에 의한 사랑가루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완성하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였다.

여기에서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는 고급기능공들이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생활조건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린것이였다. 지난 추운 겨울 초급당일군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며칠동안 자전거를 타고 군안의 곳곳을 다니면서 앓고있는 어느 한 고급기능공의 남편의 병치료에 좋다는 약재를 구해와 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야기며 또 어느 한 고급기능공을 위해 살림집을 해결하여주고 세간난 자식을 돌보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살림살이도 각근히 돌봐주어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준 사실을 비롯하여 공장일군들의 진정은 참으로 극진하였다.

이 나날에 송정금동무와 백영신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고급기능공들이 공장의 《보배》로 떠받들리우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이 하나의 사업과정을 놓고도 초급당위원회가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해왔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집단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실현해나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들이 6일 청년중앙회관과 함주군 동봉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청년동맹, 농근맹일군들,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중구역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길명철, 평양기관차대 기관사 백성철, 형제산구역 천남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황청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주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당창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륭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국방위원회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적국방건설사상과 업적, 독창적인 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천출위인의 불면불휴의 령도로 우리의 혁명무력이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온 나라가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조국땅우에 창조와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로, 당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위부대로 내세워주시고 청년들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맨앞장에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설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한경송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함경남도농근맹위원회 위원장 백운룡,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기사장 정명철,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농장원 손춘수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김일성민족의 강성번영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완성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비범한 정치군사적예지와 자질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더욱 강화하시였으며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아래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은 불패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시고 천만군민이 드높은 민족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안아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선군시대 농업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우리 나라 농촌이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되는 등 농촌경리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만년재부로 틀어쥐고 장군님의 사상과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올해에 맡겨진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원군미풍을 높이 발양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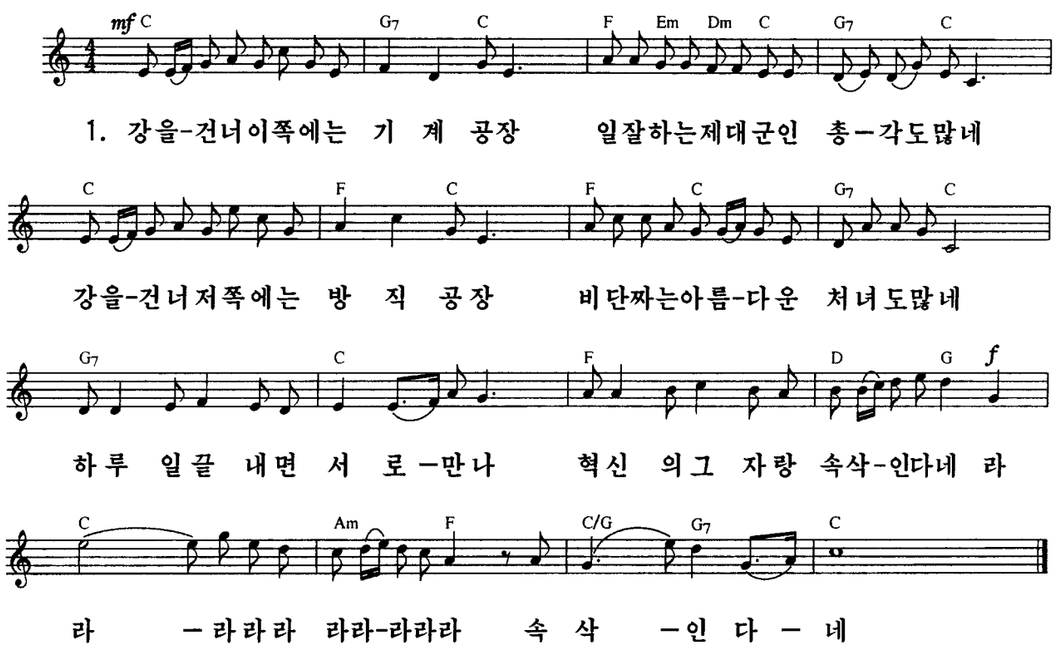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농근맹조직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모두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예로운 위훈자가 되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 춘 의 약 속

작사 최준경
작곡 전민철

랑만적으로 (♩= 114)



2. 방직공들 강물보며 말하기를
우리 짜낸 비단처럼 흘러간다네
기계공장 총각들도 말하기를
우리 펼친 기계바다 더욱 크다네
혁신의 그 자랑 커갈수록
청춘의 사랑도 깊어간다네
라 깊어간다네

3. 강물우에 둥근달도 내려앉아
청춘들의 밝은 앞날 축복해주네
강성대국 만복의 문 활짝 열 때
두 공장의 처녀총각 한가정되리
강물도 그 약속 고이 싣고
행복의 바다로 흘러간다네
라 흘러간다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단천시약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간고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난 1월 어느날이였다. 공장의 한 선광시약원료생산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였다. 그날도 선광시약원료를 우리 식으로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되였던것이다.

일군들의 얼굴에도 긴장한 빛이 떠돌았고 시험과정을 예리하게 주시하는 기술자들의 이마에도 땀이 돋았다.

공장에서 선광시약원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할 목표를 세운것은 여러해전이였다. 그때부터 기술자, 로동자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반응로를 만들고 수많은 시험을 진행하였지만 매번 시원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합성반응과정에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예상치 않았던 가스가 배출되기도 하였던것이다. 선광시약원료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생산방법에 대하여 소개한 책도 없었고 어디에 가서 배워올데도 없었다.

하지만 최호길, 리광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현기남, 최학철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신심을 잃지 않았다.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어 이악하게 노력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보람찬 로동의 나날에 그들이 가슴깊이 새긴 진리였던것이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료를 우리 식으로 안전하게 생산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밑에 시험을 중단없이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고 합리적인 생산방법도 하나둘 찾게 되였다. 마침내 또 한차례의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쥐고 시험을 진행하는 그날도 그들은 침착하게 반응과정을 주시하였다.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 속에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미소가 피여나기 시작했다. 드디여 자그마한 폭발이나 가스방출도 없이 안전하게 원료가 생산되였던것이다.

《성공이다!》

최학철동무의 웨침이였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격정을 터뜨렸다.

이렇게 되여 공장에서는 선광시약원료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안전하게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긴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목표도 높이 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공장에서 한 선광시약생산체계에 콤퓨터에 의한 원료공급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목표를 제기하였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그 장치를 도입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도 과연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들에게 기술발전과 부원송광렬동무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분발하여 노력한다면 꼭 성공할것이다.

그는 심학규, 강길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과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탐구의 길을 헤쳐나갔다. 그 나날에 그들이 그린 도면이 얼마이고 지새운 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먼길을 걷기도 하였다.

피타는 노력은 그들을 성공의 령마루에 올려세웠다. 낡은 방법으로 반응로들에 원료를 투입하던 공정이 없어지고 콤퓨터에 의해 원료공급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광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자력갱생의 정당성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선광시약생산공정에 온도수감에 의한 자동송풍량조절장치가 도입되고 로동자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속에서 일하게 된것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모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안아온 자랑스러운 열매이다.

오늘도 공장의 로동계급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령남배수리공장 제관직장 제관4작업반 로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선의 로동계급처럼 제 힘을 믿고 분연히 떨쳐일어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봄계절의 바다바람은 아직도 한겨울을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령남배수리공장 제관직장 제관4작업반 반장 서재천동무는 추위도 잊은채 오래도록 구내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의 귀전에서는 직장부문당비서가 하던 말이 떠날줄 몰랐다.

《공장에서 진행하게 되는 배무이과제를 동무네 작업반에 맡기기로 하였소.》

참으로 영예로운 과업이였다. 대부분이 30대 청년들로 이루어진 작업반에, 더구나 작업반장으로 일한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자기를 믿고 이런 무거운 과제를 맡겨준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각오가 서재천동무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결심이 심장을 끓이였지만 한편으로는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이 과업을 수행할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스며드는것도 어쩔수 없었다.

이때였다.

《반장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합니까?》하는 목소리에 서재천동무는 머리를 돌리였다. 작업반당세포비서였다. 그뒤로 얼굴에 웃음을 담고 자기를 바라보는 작업반원들의 미더운 모습이 안겨왔다. 한사람한사람을 눈여겨보는 서재천동무의 얼굴에도 미소가 어리였다.

(이런 동무들과 함께라면…)하는 신심이 방금전의 걱정을 깨끗이 가셔주었다.

서재천동무의 눈앞으로는 문득 배수리로 온 공장이 들끓던 지난 1월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때 배수리작업의 핵을 이룬다고 할수 있는 창구연재교정과 갑판교정을 스스로 맡아나선 작업반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많은 철판을 뜯어내고 새로 맞추어야 하는 창구연재교정작업은 그전같으면 한주일이 걸려야 하는 일이였다.

지난 시기 월, 분기, 년간계획을 언제나 앞당겨 수행해온 작업반원들은 이번 배수리에서도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배짱을 안고 작업에 달라붙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작업속도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려는 자기들의 배심과는 거리가 먼것이였다.

갑판교정작업을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는 속에서도 서재천동무와 작업반원들의 생각은 오직 한곬으로 흘렀다. 어떻게 하면 창구연재교정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앞당길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탐구를 하였다.

이렇게 며칠이 흐른 속에 드디여 창구연재교정을 단 1시간동안에 해제낄수 있는 대담하고 기발한 착상이 나왔다.

착상의 주인공인 서재천동무에게 모두가 축하의 인사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작업반동무들이 힘을 합쳐주었기에 이런 착상이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누구나 배수리과제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과 기술혁신방안을 내놓았으며 작업반은 기한보다 훨씬 앞당겨 창구연재교정과 갑판교정을 끝내게 되였다.

공장적인 배수리전투가 끝난 날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축하를 받으며 작업반원들은 집단의 단합된 힘의 위력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다.

공장적으로 전투력있고 일욕심많으며 기술기능수준도 제일 높은 작업반으로 손꼽히는 성과속에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집단의 위력이 깃들어있었다. …

서재천동무는 다시한번 작업반원들을 한명한명 바라보았다. 이번 배무이과제도 얼마든지 우리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이 모두의 얼굴에서 뚜렷이 안겨왔다.

그 시각 작업반원들의 가슴마다에도 일솜씨 걸싸고 열정이 불같으며 다심한 인정미를 지닌 작업반장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뜨겁게 되새겨지고있었다.

마음과 뜻을 굳게 합친 제관4작업반원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2호도크앞으로 힘있게 걸음을 옮기였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5년전 12월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시였던 길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작업반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였다.

본사기자 윤 지 혜

자랑많은 자매혁신자

평양방직공장 정방공 한철옥, 한영옥동무들

꽃들이 만발하던 8년전 봄날 공장의 영예게시판앞에 그린듯 서있는 처녀들이 있었다.

평양방직공장이 낳은 로력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오래도록 발걸음 못 떼는 두 처녀,

그들은 당이 바라는 일터에서 청춘을 꽃피울 결심을 품고 평양방직공장으로 달려온 한철옥, 한영옥자매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춘을 빛나게 살자!>, 이것이 청년들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며 인생관이다.》

언니가 정방공이 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방직공장당위원회로 찾아간 영옥이는 무작정 조르기 시작하였다. 자기도 언니처럼 정방공이 되여서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겠다고…

마침내 그도 꿈을 이루게 되였다.

눈엔 익고 손엔 설다고 정방기를 다루는 묘리를 터득하기란 쉽지 않았다. 정방기사이를 나는듯이 오가며 재빨리 실을 잇는 오랜 정방공들을 볼 때면 자매의 부러움은 커만 갔다.

(언제면 우리도 제 몫을 다하는 정방공이 될수 있을가.)

그들은 늘 교대전에 달려나왔고 교대후에도 이악하게 일을 배워나갔다. 그 나날에 그들의 이름은 자주 직장속보판에 오르게 되였고 그들은 혁신자축하무대에도 나서게 되였다.

그들이 처음으로 혁신자축하무대에 나서던 날 공장책임일군은 한직장에서 한기대를 다루는 자매혁신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왜서인지 그들은 꽃목걸이를 받기가 부끄러웠다. 분기계획, 년간계획을 완수한 혁신자들에 비해보면 한 일이 너무도 보잘것 없는것 같았던것이다.

그날 그들은 합숙으로가 아니라 일터로 달려갔다.

다음날 아침 그들의 걸음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로 향해졌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위해 수십차에 걸쳐 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사랑의 그 자욱자욱을 다시금 마음속에 뜨겁게 새겨안으며 그들은 결의다졌다.

—어버이수령님, 더 많은 기대를 다루어 우리 장군님의 뜻을 꼭 꽃피우겠습니다!

앉으나서나 그들의 생각은 한곬으로 흘러갔다.

(어떻게 하면 실을 더 많이 뽑을수 있을가?)

어느날 아침 남먼저 일터에 들어서던 한영옥동무는 수첩을 들고 무엇인가 부지런히 계산해보는 언니를 보게 되였다. 인기척을 느낀 언니는 기쁨에 넘쳐 동생의 팔을 끄당겼다.

《방금 우리가 하루에 달리는 거리를 계산해보았는데 증산의 예비는 바로 여기에 있어. 영옥아, 우리도 분당 120보뛰기운동을 하며 새 기록을 창조했던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처럼 일해보자!》

그들은 《리화순영웅과 나》, 이렇게 마음의 속보를 안고 달리고 또 달렸다.

어버이장군님께서 걸으시는 강행군길을 따라 달리는 심정으로, 정방기소리에서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를 들으며…

위훈과 혁신으로 자랑스러운 나날속에 그들이 맡아보는 정방기수는 늘어났으며 한철옥동무는 지난해 7월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까지 지니게 되였다.

너무도 큰 영광을 받아안고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겨있는 한철옥동무에게 누군가가 덥석 안기였다. 영옥이였다.

《언니, 그 손을 좀 잡아보자. 아버지장군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을!》

뜨거운 눈물을 쏟는 동생에게 한철옥동무는 목메여 말하였다.

《영옥아,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꼭 자매혁신자로 기쁨을 드리자!》

우리는 믿는다. 언제인가는 방직공장의 영예게시판에서 영웅자매정방공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조 향 선

초소에서 보내온 기쁜 소식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중구역 외성동 동방걸동무의 가정에서— 리 진 명 찍음

독자의 편지

이런 인민보안원을 자랑합니다

우리 락랑구역 충성2동의 주민들은 구역인민보안서의 인민보안원 김광덕동무를 사랑하며 존경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저의 집으로 김광덕동무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하여 미제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영예군인이 된 저의 시아버님에게 여러가지 보약들과 식료품을 안겨주면서 생활을 락천적으로 해나가도록 고무해주었습니다. 지난 2월의 명절날에도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찾아와 시아버님을 기쁘게 해준 김광덕동무였습니다.

그는 몇해전 한 영예군인이 가정을 이룰 때에도 결혼상을 차려주고 살림살이도 돌봐주었으며 한 청년의 사업과 생활도 친형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면서 그가 모범로동자로, 청년동맹초급일군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의 가정뿐아니라 동안의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면서 강성대국건설에 애국의 땀을 바쳐가도록 적극 도와주는 김광덕동무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어찌 다 적을수 있겠습니까.

김광덕동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동의 주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보안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인민보안원인 김광덕동무를 널리 자랑합니다.

락랑구역 충성2동
36인민반 리 춘 옥

스위스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스위스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스위스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서세평동지가 임명되였다.

국제의회동맹 제122차총회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

타이에서 진행된 국제의회동맹 제122차총회에 참가하였던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혈 육 의 정 으 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처럼 돌봐주고있는 사람들속에는 구성시 신흥중학교 청년동맹지도원 허천용동무도 있다.

몇해전 학교주변 마을에 한 영예군인이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때부터 출근길에도 들려보고 퇴근길에도 들려보며 영예군인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돌보아주고 명절날과 기념일, 생일날에도 가족들과 함께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영예군인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면 허천용동무는 말하군 한다.

《우리야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한식솔이 아닙니까.》

로농통신원 리 금 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한없이 우러르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날이 갈수록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 그것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걷고걸으시며 강성번영할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 뜨거운 격정의 분출인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을 그리는 우리 민중의 마음 흐르는 세월과 함께 더더욱 뜨거워집니다.》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 민중과 함께 계시옵니다.》

서울과 인천, 광주와 대전을 비롯한 남녘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파도가 뜨겁게 설레인다.

해빛같이 따사로운 사랑과 바다와 같이 넓은 포옹력으로 온 겨레를 따뜻이 품어주시며 조국통일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처럼 민족을 위한 위대한 사랑과 불멸의 헌신으로 한생을 수놓으신 위인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남녘의 민심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격정을 터치고 있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네트들에는 이런 글들이 실리였다.

《태양의 존함을 지니시고 나라의 륭성번영과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태양과 같이 한생을 빛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온 세계가 공인하는 국제적수령이 다름아닌 우리 민족의 영원한 령수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긍지스럽고 자랑스러운것인가.》

《하나의 조선로선을 핵으로 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을 길이길이 받들렵니다.》

민족을 위한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한평생과 업적은 력사와 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는법이다.

오늘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력사, 우리 인민이 이룩한 거창한 전변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에 대한 일대 과시인 동시에 주체의 기치높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장정을 이어오신 수령님의 로고와 헌신의 산물인것이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와 당기도,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선군의 총대도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애국헌신의 로정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전하여준다. 자신의 모든것을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해 깡그리 바치신 그처럼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리 겨레가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간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높이 흠모하고 칭송하는 남녘겨레의 절절한 마음은 남조선출판보도물에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다.

남조선의 신문, 잡지, 텔레비죤, 인터네트를 비롯한 각종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사진을 모시고 그이의 빛나는 생애와 관련한 기사들을 싣고있다.

몇해전 부산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풍모와 거룩한 업적을 수록한 소책자 《위대한 인간》이 태양회의 명의로 출판되였다. 도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와 고매한 인덕,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간애를 《그이의 다정다감한 인간미》, 《무한한 겸손성과 소박성》, 《풍만한 정서》 등 3개의 장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태양회는 도서의 앞부분에 책을 편집출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밝히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잊지 못해하는 이남민중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주석님의 위대한 인간상에 대하여 편집하였다.》고 썼다.

도서는 출판되자마자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속에 급속히 보급되였는데 이 책을 본 서울대학교의 한 녀학생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고 한다.

《태양은 영생의 상징입니다. 태양의 영원속성이 태양자체에 있듯이 인간영생도 인간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력사는 명망높은 령수들을 기록하고있지만 수령으로서 영생하시는분은 오직 인간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뿐이십니다. **김일성**주석님은 사상과 정치실력, 인격과 인품으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력사의 위인들을 다 합쳐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성인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해와 달이 다하도록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남녘겨레의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흠모심이 그처럼 열렬하기에 그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이 땅우에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김정일**령도자님 계시여 겨레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주석님은 오늘도 래일도 길이길이 우리 민중과 더불어 영생하실것이다.》

《우리 민족의 어버이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이시다. **김일성**주석님은 오늘의 **김정일**령도자님이시고 **김정일**령도자님은 곧 **김일성**주석님이시다.》

…

남조선곳곳에서 울려나오는 흠모의 목소리들에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민족재생의 은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불멸의 업적을 민족사에 길이 빛나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렇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민족의 태양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겨레의 마음도 영원불멸한것이다. 태양의 위업을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선은 태양민족의 존엄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김 현 철

북침전쟁기도를 드러낸 도발적망발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 샤프라는자가 미국회 하원에서 우리에 대한 심히 도발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날 이자는 그 무슨 《북급변사태가능성》이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이 남조선과 함께 그에 따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떠들었다. 샤프의 언동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그 무슨 《변화》니 뭐니 하고 떠들며 그에 대비한 군사적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은 우리에 대한 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엄중한 도발행위이며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려는 비렬한 모략책동이다.

지금껏 미국은 남조선보수패당과 작당하여 모략적인 《북급변사태》설을 끈덕지게 내돌리며 반공화국도발을 일삼아왔다. 문제는 내외호전광들이 감히 그 무슨 《급변사태》라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이다. 이번에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은 그 무슨 《불안정사태》항목들을 일일이 렬거하며 그에 대비하여 저들이 남조선에 《확장된 억제력을 변함없이 제공》하며 남조선과의 《동맹과 공조를 긴밀히 할것》이라고 고아댔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그 어떤 《불안정사태가능성》이 있는듯이 내외에 적극 여론화하여 저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임의의 구실을 대고 우리에게 모험적인 핵선제공격을 가하려는 위험한 기도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얼마전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북급변사태》에 대비한다고 떠벌이며 《작전계획 5029》를 적용하여 발광적으로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미국상전에게 추종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체제대결소동,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이미 《급변사태》를 가상한 이른바 《비상통치계획》과 《통일대계탐색연구》와 같은 극히 도발적인 북침모략각본을 꾸며낸 보수패당은 지금 미국과 함께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미친듯이 헤덤비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괴뢰군부우두머리들앞에서 있지도 않는 《북의 도발》에 대해 떠벌이며 《만전의 대비태세확립》을 운운한 사실과 《국방부》 장관 김태영이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폭언을 련이어 내뱉으면서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지령을 떨군것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위험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남은것은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 구실을 마련하는것이다. 그것을 위해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설을 집요하게 내돌리면서 비렬한 모략선전에 그처럼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이 꿈꾸고있는 이른바 《급변사태》라는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 어리석은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뿌리내리고 강위력한 선군총대에 의해 담보되는 불패의 강국이다. 수십년세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과 도발적인 침략전쟁책동을 일심단결의 위력과 과감한 공격전으로 쳐물리치며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끄떡없다.

굳이 《급변사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거듭되는 정치, 경제적위기속에 나날이 파산몰락의 길을 걷는 미국과 반역통치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남조선에서나 터질수 있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해 고아대기 전에 저들의 운명에 대해서나 신경쓰는것이 좋을것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계층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책동은 자멸을 초래하는 무모한짓이다. 자기의 존엄과 체제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그것을 감히 건드리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헛된 야망에 들떠 물덤벙, 술덤벙해야 화밖에 초래될것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허 영 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

핀란드인사의 담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여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안띠 씨까 아호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4월 6일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신 17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선인민에게 애국의 깊은 뜻을 새겨주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정치강령이다.

주석께서 내놓으신 애국애족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발전풍부화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고 자주통일과 민족대단합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것은 조선인민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핀란드조선협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애족의 강령으로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치이라고 간주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적단합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영국단체 미제의 세균전만행을 규탄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3월 27일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저지른 세균전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까타르의 《알 자제라》위성TV방송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세균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1950년대 당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국제민주녀성련맹의 조사단들에 의하여 폭로된 이 사실은 다시금 확인되였다.

우리는 미국이 이 범죄에 대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중앙통신】

임금인상을 요구

남조선의 민주로총을 비롯한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련대회의가 얼마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할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지금 로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있으며 특히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만명에 달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단체는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남조선에서 전적으로 임금에 매달려 살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은 마지막생명줄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시급히 임금인상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금인상의 실현을 위해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련대하여 범국민서명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룡산참사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요구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서울에서 룡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성식을 가지였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룡산참사 진상규명과 살인주모자 처벌, 《재개발》저지를 위한 투쟁을 보다 광범히 벌리기 위해 로동자, 농민,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망라된 룡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룡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게 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룡산참사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치르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것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생존권을 위해 롱성투쟁에 나섰던 룡산철거민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살인》혐의를 씌워 아직까지 감옥살이시키고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를 묵인한다면 룡산참사와 같은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참사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대학졸업생실업률

남조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괴뢰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월현재 대학졸업실업자의 수가 44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8%나 증가한것으로서 사상 최대기록이라고 한다.

특히 이중에서 한번도 직업을 얻지 못한 사람은 1월보다 1만 4000명이나 늘어났다.

본사기자

《보안법》을 철페하고 파쑈탄압 중지하라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 성명, 론평 발표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가 얼마전 론평을 발표하여 단체성원들에 대한 괴뢰당국의 파쑈탄압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공안당국이 《보안법》위반혐의로 실천련대 이전 핵심성원들과 산하단체인 《미래》가극단 대표의 집을 동시에 강제수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공안당국이 이들의 과거 학생운동과 실천련대활동경력을 문제로 삼아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공안당국이 기회만 있으면 실천련대성원들과 산하단체들에 대하여 탄압을 가하며 폭압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행위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반민중적악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제거하여 인민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탄압을 거듭할수록 인민들의 항거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만일 당국이 악정을 철회하지 않고 탄압소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50년전 4.19봉기에 의해 거꾸러진 독재자 리승만의 뒤를 고스란히 밟게 될것이라고 론평은 경고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인민탄압, 《정권》유지의 도구 《보안법》을 당장 철페하고 실천련대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조선의 진보련대는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에 대한 파쑈당국의 야수적인 폭거를 폭로하면서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안당국이 2008년 초불시위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실천련대조작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단체성원들을 련행, 체포하여 감옥에 잡아가두다 못해 오늘은 이전 성원들에게까지 폭압의 마수를 뻗치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해 구성된 민간통일운동단체에 대해 《리적》이니, 《보안법》위반이니 하며 탄압하고있는것은 남북관계개선과 민족의 통일운동을 가로막으려는 당국의 반통일적본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인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에 단결된 힘으로 저항해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청년로조에 대한 괴뢰당국의 폭압행위를 규탄하여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청년들이 현 《정권》에 의해 초래된 최악의 실업위기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청년로조를 내온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자기 힘으로 타개하려고 일떠선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실업문제해소》를 떠들던 당국이 오히려 청년로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망라된 성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리는 등 탄압을 일삼고있다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론평은 과거 인민들의 정치참여를 통제해온 군사독재《정권》의 폭압과 다를바없는 현 당국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언명하였다.

청년로조설립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론평은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청년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의 인터네트방송 《민중의 소리》가 2일 파쑈악법에 의한 괴뢰당국의 폭압책동을 비난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현 당국이 《4대강정비》공사, 《MBC》방송장악 등 반민중적정책에 매달리고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굴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각계층 민중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막다른 위기에 빠져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바빠맞은 당국이 《보안법》을 앞세워 파쑈폭압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이것은 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써먹던 낡은 수법의 하나라고 비난하였다.

론평은 악법을 휘둘러 당국이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해나섰던 초불투쟁참가자들의 뒤를 밟고 최근에는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에 돌아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공안탄압이 더욱 횡포해지고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당국의 공안탄압에 강력히 대응하자면 모든 진보세력이 굳게 뭉쳐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독도강탈야망을 부채질한 진범인

외세의 침략책동에 대한 한걸음의 양보는 백걸음의 후퇴를 낳고 나아가서 망국의 치욕을 불러오게 된다.

사대매국적인 《실용정권》의 출현과 함께 더욱 오만방자해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은 이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며칠전 일본문부과학성은 교과서검정조사심의위원회라는것을 열고 《독도령유권을 명확히 표현한 초등학교 사회과목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사용할 5종류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표현이나 독도를 일본령해를 표시한 선안쪽에 포함시킨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검정에서 통과되였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일본당국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검정원칙》에 따른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돌리고있다.

독도가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라는것은 력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되고 공인된 사실이다.

최근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을 부정하는 《대일본전도》와 같은 여러장의 지도가 일본에서 발견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한 일본인교수가 이번에 처음 공개한 《대일본전도》는 일제의 조선침략의 주력이였던 일본륙군 참모국이 1877년에 제작한것으로서 일본의 령토표기에서 독도는 제외되여있다.

1899년 일본륙지측량부가 20만분의 1크기로 만든 지도에도 독도는 일본령토가 아닌것으로 되여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독도강탈흉심이 꽉 들어찬 교과서검정놀음을 벌리면서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댔다.

여우가 꼬리를 사려도 노린내만은 감출수 없듯이 아무리 《평화국가》의 벙거지를 쓰려 해도 일본반동들의 령토팽창야망은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던 그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오히려 지금 그것은 더욱 무분별해지고 오만방자해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야망을 부채질한 장본인이 사대매국적인 《실용외교》를 떠들며 일본과의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협력시대》를 제창해온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집권하자마자 친일에 환장하여 일본반동들을 독도강탈에로 부추긴 보수패당의 추악한 매국적정체를 얼마전에 드러난 사실을 통해 까밝혀보자.

얼마전 일본의 《요미우리신붕》이 전한데 의하면 남조선당국자는 지난 2008년 일본행각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실로 놀랍기 그지없는 저자세를 취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남조선집권자는 회담에서 일본수상이 교과서에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쓸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에 대해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비굴하게도 《지금은 곤난하니 기다려달라.》고 청탁하였다.

신성한 우리 민족의 령토인 독도를 파렴치하게도 제땅이라고 우겨온 일본반동들이 이제는 오만하게도 최고당국자회담에서까지 독도강탈야망을 드러냈으니 사실 남조선집권자로서는 회담탁을 걷어차고 나와도 씨원치 않을판이다. 그런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기다려달라.》는 소리나 하였다.

남조선집권자의 발언이 공개되자 야당들이 일제히 집권자의 망언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규탄해나섰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협력시대》나발을 불어대며 조선재침책동에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이렇게 낮추 붙으며 루추하게 놀아댔으니 간특하고 오만한 일본반동들이 왜 독도강탈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는가.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일본상전의 독도강탈야망을 부채질한 저들의 반역적죄악이 날날이 드러나자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본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놀음에 《항의》하는 연극을 놀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세력의 친일근성을 너무도 잘 아는 일본반동들은 그에 꿈쩍도 안하고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부지하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 피눈이 되고있는 《실용》패거리들이 집권해있는 한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이 앞으로 더욱 로골화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리 효 진

언론보수화는 반력사적범죄

최근 남조선언론계에서 보수화경향이 극심하게 나타나 커다란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에는 정치적혼란과 경제파탄 그리고 북남관계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현실은 외면하면서 당국의 반인민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책들을 덮어놓고 미화분식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기사, 편집물들이 련이어 실리고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외곡, 편파보도로 하여 남조선에서 정의와 진리가 유린, 말살되고 사회의 파쑈화가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에 부정적후과가 미치고있다. 《실용》독재의 반인민적, 반통일적전횡을 외곡보도로 극구 비호, 두둔하는 어용방송, 어용신문들에 의해 남조선은 암흑의 언론페허지대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지금껏 외세와 매국노들의 비호와 조종밑에 보수언론들이 살판쳐왔지만 언론의 보수화가 이처럼 심각해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남조선언론계의 보수화경향은 집권세력의 파쑈적인 언론장악, 언론어용화책동의 필연적귀결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언론들을 어용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언론기관 주요인물들의 사상과 경향을 철저히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실용정권》의 정책시행에 장애로 되는 언론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저들의 앞잡이들을 올려앉혔으며 기사, 편집물들에서 당국에 대한 비판론조들을 없애도록 하였다. 보수패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내세워 언론기관들의 운영과 보도활동의 전과정을 철저히 장악통제하면서 언론전반을 어용화, 보수화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이것은 사실상의 언론말살행위이다.

남조선언론계의 보수화경향은 《실용정권》이 처한 극도의 위기와 떼여놓고 볼수 없다.

반역도당은 온갖 요설과 기만,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였지만 무능과 민심을 외면하는 독선적인 정치로 하여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져들고있으며 그것은 《실용정권》의 기반을 뒤흔들고있다. 실제로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를 반역통치배들에 대한 심판장으로 만들겠다는것이 남조선각계의 의지이다. 보수패당은 집권위기로부터의 출로를 폭압체제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진보적언론을 말살하고 언론을 더욱 보수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아 반《정부》기운을 차단하는데서 찾고있다.

인류사를 돌이켜보면 인민의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자들은 례외없이 인민을 등진 폭군들, 극악한 독재자들이였다. 이자들은 야만적인 언론말살, 언론인탄압으로 악명을 떨치였다. 전인류를 대전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면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였던 히틀러나 무쏠리니도 언론에 닥치는대로 자갈을 물리면서 파쑈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하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력사발전의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하였던 폭군들의 종말은 언제나 비참하였다. 사회의 진보와 나라의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언론을 총칼로 다스리며 폭압에 기승을 부리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남조선의 력대 독재자들의 운명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보수패당의 언론어용화책동은 그 수법과 성격에 있어서 류례없이 악랄하고 비렬하며 교활하고 음흉하다. 그러나 그것은 독재《정권》으로서의 《실용정권》의 말기증상을 예고해줄뿐이다.

남조선에서 시대의 선각자, 민심의 대변자, 정의와 진리의 옹호자로 되여야 할 언론이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역적패거리들의 정치시녀, 둘러리로 되여가고있는것은 언론의 사명과 본분을 저버린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일부 언론인들이 당국의 압박과 탄압이 두려워 량심을 저버리고 파쑈《정권》의 반역책동에 온갖 미사려구를 던지며 반공화국모략선전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다. 이것은 참으로 개탄할노릇이 아닐수 없다.

언론은 무엇보다 진실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여야 한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면 대중이 진실과 허위를 가려보지 못하게 되고 시대의 발전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며 나아가서 민족의 운명과 장래가 망쳐진다. 그렇기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은 언론의 생명이라고 하는것이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다름아닌 언론인자신들의 량심과 지조에 의하여 담보된다. 언론인들이 불의와 압제속에서도 량심과 지조를 지켜 정의와 진리로 대중을 깨우치고 시대를 선도할 때라야 언론이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지난 세기초 우리의 민족언론인들은 량심과 지조의 필봉을 들고 《시일야방성대곡》을 터뜨림으로써 침략자와 매국노들의 죄악을 신랄히 폭로단죄하고 겨레의 애국심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들은 일제의 총칼폭압이 우심한 속에서도 분연히 《일장기말소》를 단행하며 민족의 얼을 지켜싸웠다. 그것은 지금도 후대들의 찬양을 받고있지만 반대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협조해나선 매국언론인들은 겨레의 지탄속에 죄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더우기 북과 남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민족사적과제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오늘 언론인들이 정의와 량심을 지켜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서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분렬의 비극이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오늘 최고의 정의, 최대의 애국은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나라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 온 겨레를 자주통일에로 불러일으키는 애국적인 언론활동을 벌려야 한다. 압박이 무서워 매국의 길을 따라가면 목숨은 붙어있어도 죽은 언론인이나 다름없다.

지금 시대와 민족이 지켜보고있다. 남조선언론인들은 보수당국의 언론어용화책동에 놀아나 반역의 길을 걷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집권세력의 언론어용화책동에 단호히 반기를 들고 사회적진보와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애국적인 언론활동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보수패당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현실을 외곡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남조선의 어용언론들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은 정 철

행성에 굽이치는 위인칭송의 열풍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만민의 위인흠모의 정이 온 누리에 차넘치고있다.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하늘이 낸 위인으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인민적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천기를 다스리시는 위인

주체90(2001)년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길에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지가지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그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기를 다스리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칭송의 이야기도 있다.

하싼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에 대한 5만여리의 장정에서 처음으로 들리시게 되는 곳이였다.

이날 하싼역은 우리 장군님을 맞이하게 된 기쁨을 안고 마중나온 로씨야의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과 군중들로 붐비고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영접일군들과 환영군중은 안타까움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착하실 시각이 한초한초 가까와옴에 따라 안개가 더욱더 짙어가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자연현상이라 그들도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그들은 그것이 우리 장군님의 로씨야방문길에 방해라도 될가봐 걱정하며 무심한 자연의 조화를 원망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였다.

조금후에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하늘이 맑게 열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특별렬차가 하싼역구내에 서서히 들어선것은 바로 그 시각이였다. 역구내에는 밝은 해살이 비쳐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환영군중은 이 신기한 자연현상을 두고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천변만화하는 자연의 일종의 변덕으로, 천만다행스러운 일로 여기였을뿐이였다. 그러던 그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게 되였다.

특별렬차가 하싼역을 지나 노보씨비르스크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옴스크에서도 이런 신기한 자연현상은 계속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대외활동을 벌리실 때에도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금시 대줄기처럼 쏟아져내리던 비가 장군님께서 참관대상지에 도착하시기만 하면 뚝 멎었다가 장군님께서 차에 타시면 다시 퍼붓기를 그 몇번…

하도 신기하여 싼크뜨—뻬쩨르부르그의 한 일군이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김정일동지, 사람들이 말하듯이 해는 당신의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필요한 때에 꺼내여 비치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천기를 다스린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직접 목격하니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위인이십니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은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

세상을 놀래운 충격

위인에 대한 매혹과 경모, 숭고한 사상감정은 리념과 정견, 사회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방세계에서도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이 세계에 전해지고 진보적인류가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던 때인 1997년 10월 11일 VOA방송은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김정일최고령도자는 아직 세계가 알지 못하는 특유한 정치령수이시고 놀랄만큼 사회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충실성, 강인성을 지니신 사회주의정치가, 군사가이시라는것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김정일최고령도자는 아직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정치술수, 완강한 의지의 체현자이시라는 사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방송은 계속하여 《강적인 북조선과 맞서고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의 정계와 군부에 경종을 울리였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보도였다.

줄곧 사회주의와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고 허구와 날조까지 섞어가며 험담을 일삼던 미국의 언론이 우리 장군님을 세계가 알지 못하는 《특유한 정치령수》, 《사회주의정치가, 군사가》로 격찬한것은 만민이 높이 우러러따르며 경모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결코 부정도 외곡도 할수 없기때문이였을것이다. 하기에 다른 서방언론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칭송하고있다.

세계특유의 류행

잠바옷이 입기에도 간편하고 활동에도 편리하며 그 원가도 낮아 사람들이 흔히 입는 평복으로 되여온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하지만 수수한 잠바옷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최고로 가치있고 고상하며 품위있는 세계적으로 특유한 류행복으로 되고있다.

수수한 잠바옷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계적인 류행복으로까지 되게 된것은 언제나 늘 평범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사업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세상사람들에게 깊은 인상과 큰 충격을 주고 기본은 그이의 위인상이 특출하기때문이다.

뛰여난 자질과 품격을 지니시고 불멸의 세계사적업적을 이룩하시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하며 수수하고 평범한것을 좋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적성품은 세계에 《김정일식류행》을 불러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입고계시는 잠바옷뿐아니라 그이의 몸가짐과 표정, 손짓 그리고 그이의 필체에까지 세상사람들은 매혹을 느끼며 따르려 하고있다.

프랑스의 한 류행전문가는 세계 여러곳을 다니면서 《김정일식류행》을 목격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인류사회력사를 살펴보면 새것에 대한 지향, 모방심은 고대로부터 발생하였으며 그후 사회발전과 함께 류행으로 굳어져왔다. 오늘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김정일식류행〉은 인류력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유의 류행이다.》

오늘 세상에 널리 퍼지는 《김정일식류행》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열렬한 매혹과 흠모심을 불러일으키는 세계특유의 류행이며 우리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받들려는 만민의 순결한 사상감정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얼마전 도이췰란드의 한 재판소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네데를란드민간인들을 살해한 이전 나치스전범자에게 종신형을 언도하였다. 법적판결을 받은 이자는 1944년 파쑈도이췰란드가 네데를란드를 강점하였을 때 항쟁운동을 탄압할데 대한 명령을 받고 여러차례에 걸쳐 살인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그의 나이는 88살이다.

이번에 도이췰란드의 한 재판소가 이전 나치스전범자에게 종신형을 언도한것은 일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형의 뜻만을 담고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청산의 일환으로서 자국이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립장에서부터 단행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날 파쑈도이췰란드는 력사와 인류앞에 너무도 큰 죄악을 저질렀다.

전후 도이췰란드는 과거죄과를 씻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여왔다. 도이췰란드는 피해국들은 물론 개별적인 단체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국이 전쟁피해를 입힌 정형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국가적인 배상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도이췰란드는 숨어있는 이전 나치스전범자들을 적발하여 해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형사처리하는 조치들을 취하는것으로써 과거와 결별하려는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도이췰란드의 한 재판소가 이전 나치스전범자에게 종신형을 언도한것은 그에 따른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전범국인 일본의 태도는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 일제의 침략죄행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파렴치하게도 과거 일본은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한것이 아니라 유미렬강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었다느니, 아시아나라들의 《문명발전을 도와주었다.》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난날의 죄과를 외곡,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의 한 고위관리는 《과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것은 력사의 필연이였다.》고 망발하였다. 이것은 일제에 의해 참혹한 재난을 당한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정의에 대한 우롱이다.

과거 일제는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거나 탄광이나 군사시설공사장 등에서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나중에는 《비밀엄수》라는 미명하에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노예로 전락시킨것은 세계전쟁사에 있어보지 못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일제침략군은 《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강간하다 못해 그들을 군도로 목을 잘라죽이고 임신한 녀성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여 밟아죽이는것과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침략군의 만행에 의해 그들대다수가 고향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묻히고말았다.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생존자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여난다고 하면서 일제에 대한 원한의 피값을 받아내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 분노의 웨침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여러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과거범죄를 미화분식하는가 하면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세월이 흐르면 과거범죄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삭막해지고 나중에는 론의조차 되지 않을것이라고 타산하고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나 과거청산을 회피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반인륜적범죄는 절대로 묵과될수 없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일제의 피비린 죄악은 약화시킬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죄는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그 엄중성이 더 커지게 되며 그에 따른 처벌도 역시 중해진다. 일본반동들이 과거죄행을 계속 부정하면서 그 청산을 회피하는 리면에는 식민지지배시절을 그리워하며 되살리려는 흉악한 기도가 깔려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이를 사려물고 대조선적대시책동에 광분하는것은 거기에 기인된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대일증오심과 복수심을 더욱 분출시키고있다.

일제에 의해 우리 인민은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은 그 어떤 요술로도 덮어버릴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는것으로 하여 앞으로 어떤 화를 입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있다. 그것을 후회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될것이다.

일본은 과거죄행을 성근히 반성하고 자기 할바를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백문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인디아정계인사 담화 발표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위원 하리싱 캉이 3월 2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조선로동당과 용감한 조선인민에게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를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조선을 해방하시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락후한 농업국가였던 조선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시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제도를 훌륭히 일떠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94년 7월 뜻밖에 서거하시였으나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기념하고있으며 그이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

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녀성들의 역할문제에 대해 언급

뜌니지대통령 진 엘 아비딘 벤 알리가 2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해 언급하였다.

녀성들이 없이는 사회의 그 어떤 진보도 이룩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온갖 형태의 녀성차별을 청산하는것은 나라를 현대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녀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들 협조

먄마와 웰남이 2일 수산업, 농업, 은행, 통신, 광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호상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7건의 협정과 량해각서들을 체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1일 꾸바와 우크라이나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군용기 추락

미해군소속 조기경계기가 3월 31일 페르샤만지역에서 전쟁연습에 돌아치던중 추락하였다. 결과 비행기는 박산이 나고 1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뻬루에서

뻬루국회가 3월 30일 금연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이 일체 금지되게 된다.

또한 주민들속에서 담배의 해독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다 한다.

인디아에서

인디아에서 2008—2009년 사탕수수재배계절에 1470만t의 사탕을 생산하였다.

나라에서는 올해 9월에 끝나는 2009—2010년 사탕수수재배계절에 사탕생산량을 1800만t으로 끌어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2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4% 증대되였다. 특히 전자제품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이 나라에서 에이즈방지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국가의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에이즈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벌어진 결과 지난해 에이즈비루스감염률은 2000년에 비해 10.9% 줄어들었다.

본사기자

수도전민의무식수활동 진행

중국의 베이징시에서 3일 수도전민의무식수활동이 진행되였다.

호금도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간부들이 베이징시 해전구 복오공원에 나가 시민들과 함께 의무식수활동에 참가하였다.

호금도주석은 나무를 심은 다음 참가자들에게 전민의무식수활동을 벌리는것은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명을 건설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과학적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 활동을 항구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수도의 180만명 주민들과 군인들이 의무식수활동에 떨쳐나 시내의 여러곳에서 21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1330여만㎡의 록지를 정리하였다. 베이징시에서는 전민의무식수활동이 시작된이래 지금까지 1억 770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한다.

본사기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늘어나는 실업자수

일본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로 해고사태가 계속되고있다.

3월 30일 이 나라 후생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림시직업을 가진 근로자들가운데서 해고자수가 약 27만명으로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31일 도이췰란드련방로동사무소가 밝힌데 의하면 도이췰란드에서 올해 3월에 실업자수가 356만8000명에 달하였다. 실업률은 8.5%를 기록하였다 한다.

총기류범죄 발생

미국의 워싱톤에서 3월 30일 2차례의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여 주민들속에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였다.

이날 총기류범죄로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당하였다 한다.

또한 3월 26일 뉴욕시경찰당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에 들어와 3월 21일까지 시에서 감행된 살인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대되였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3월 29일 2건의 총기류범죄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총기류범죄로 2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한다.

경제침체

프랑스에서 지난해 예산적자가 1448억€에 달하였다.

이로써 그것은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그 전해보다 2.2% 감소되였다.

뛰르끼예에서 올해 2월에 무역적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배이상 늘어나 33억US$에 달하였다.

뉴질랜드에서 지난해 경상수지적자가 55억NZ$(뉴질랜드딸라)에 달하였다.

일본에서는 올해 2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달보다 0.9% 감소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수

최근에 발표된 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150여만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있다 한다.

일본에서 강풍

일본 도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얼마전 강풍이 휩쓸어 피해가 났다.

시속 140㎞의 강풍으로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살림집들의 지붕이 날아났다. 또한 렬차와 비행기운행이 중지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한다.

화산 분출

이슬란드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분출로 약 400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그릇된 처사를 단죄

—뛰르끼예수상 에르도간이 3월 27일 제22차 아랍국가련맹 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릇된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꾸드스를 저들의 《수도》라고 우겨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미친짓으로 락인하였다. 꾸드스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곳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이슬람교성지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만행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중앙위원회 위원 다흘란이 3월 29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단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자들이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면서 평화과정을 추진시키는데 나서지 않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부당한것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현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은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의 합법적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반이스라엘시위를 벌리는 팔레스티나녀성들과 학생들

송충피해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에서 최근 계속된 고온과 가물로 송충이 퍼져 많은 산림이 피해를 입고있다.

3월 중순 자치구적으로 40만 6000무의 잣나무림이 송충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늘어난것으로 된다. 피해가 심한 곳은 남녕, 백색 등 지역이라고 한다.

지진

칠레의 마울레주에서 3월 28일 리히터척도로 6.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싼띠아고시로부터 남쪽으로 28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불량차문제를 둘러싼 소동

일본의 《도요다》회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동차독점체이다. 그런 회사가 지금 국제시장에서 개몰리듯 하고있다. 발단은 지난해 이 회사에서 생산하여 판매된 신형차들이 운행중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다는 신소가 사용자들로부터 제기된데 있다.

문제는 신형차들의 결함이 가속장치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제동장치에도 있다는것이 드러나면서 일이 보다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는것이다.

지난 2월초현재 《도요다》회사가 판매한 불량차들로 하여 미국에서만도 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120여건의 신소가 제기되였다고 한다. 사태가 심각한데로부터 《도요다》회사측은 시장에 내놓았던 8가지 형의 차들을 회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미국과 유럽 등 지역에서 회수소동을 벌리고있다. 앞으로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중동으로 확대될수 있다고 한다. 수많은 차들이 회수될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세계자동차시장에서 제노라하던 《도요다》회사가 이번 소동으로 신용을 잃고있다. 《도요다》회사측은 사용자들에게 사죄를 한다, 무상수리를 해준다 어쩐다 하면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진땀을 뽑고있다.

사람들의 생명이야 어떻게 되든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불량요소들이 있는 차들을 서뿔리 판매한 《도요다》회사로서는 응당한 봉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빠진 놈 꼭뒤 차는 격으로 《도요다》회사의 불량차문제를 놓고 미국이 때를 만난듯이 큰소리치며 삿대질해나서고있다.

미국정부와 국회, 사법계까지 이 사건에 개입하여 《도요다》회사를 다불러대고있다. 최근 미국회 하원에서 《도요다》회사의 불량차문제를 둘러싼 청문회가 7시간동안이나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미국의 정계인물들은 《도요다》회사가 왜 불량차의 결함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았는가, 결함이 나타난 후에도 어째서 신속히 회수하지 않았는가, 진짜 사죄할 생각이 있기나 한가고 연방 질문과 조소를 퍼부어 증언에 나섰던 《도요다》회사 사장을 골탕먹이였다.

미국은 말로만 《도요다》회사를 혼내주려는 심산이 아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한차례 회수할 때마다 그 제작회사에 약 1640만US$를, 결함이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동차를 팔아먹은 판매업자에게는 대당 6000US$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 법을 걸고 《도요다》회사가 저들의 압력을 받고서야 뒤늦게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는것을 트집잡아 벌금을 물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운수성이 《도요다》회사에서 생산한 신형차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미국의 조치로 《도요다》회사의 손해가 약차해질것이라고 한다. 차들을 회수하는데만도 약 20억US$가 들것으로 추산되고있는데 거기에 벌금까지 겹치면 《도요다》회사의 손실액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도요다》회사측으로서는 늘 《형님》이라고 떠받들던 미국으로부터 혹독한 랭대와 타격을 받는것이 통분할 일이지만 저들의 잘못이 있는지라 벙어리 랭가슴앓듯 하며 하는수없이 빌붙고있다. 얼마전에도 《도요다》회사 사장은 미운수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성을 놓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된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있으며 안전대책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도요다》회사의 불량차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토교통상까지 나서서 미국의 불만을 눅잦히느라 모지름을 쓰고있다. 그러나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일본에 점점 더 불리하게 꼬여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열흘동안에만도 《도요다》회사의 주가가 15% 폭락하여 200억US$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여론들은 이번 불량차문제를 놓고 미국이 단순히 그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일본에 혹독한 벌을 가하려는것이 아니라고 평하고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미국에 있어서 그야말로 맞춤한 기회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심각한 금융위기로 하여 파산위기에 처해있다. 세계자동차업계의 1인자로 자처해오던 《제네랄 모터스》를 비롯하여 미국의 여러 자동차업체들이 파산되였거나 경영위기에 빠져 생산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미국은 침체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 반면에 일본의 《도요다》회사는 지난해에도 자동차생산에서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였을뿐아니라 연유소비량이 적고 현추세에 맞는 신형차들을 대량출품하여 미국제 자동차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이러한 《도요다》회사를 미국이 곱게 볼리 만무하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요다》회사를 엄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 회사의 불량차문제를 여론화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고있다. 한마디로 이번 기회에 미국자동차업계의 오랜 경쟁자인 《도요다》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려 자국자동차시장에서 밀려나게 하고 저들의 리속을 차리자는것이 미국의 속타산이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시장에서 《도요다》회사차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있어 여론의 주의를 끌고있다고 한다.

극단한 개인주의,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흔히 있는 현상이다. 미일 두 《경제동물》간의 상반되는 경제적리해관계에 의한 모순은 날로 더욱 커질것이다.

본사기자 전영희

도시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오늘은 《세계보건의 날》이다. 《세계보건의 날》이 제정된 때로부터 60돐이 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1950년에 기구의 창립일인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사업과 행사들을 진행하여왔다.

《세계보건의 날》은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사회복리 및 사회보건문제의 해결방도를 모색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에 《세계보건의 날》제정 60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특색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다.

이번 《세계보건의 날》의 주제는 《1000개의 도시, 1000명의 생명: 도시건강문제》이다. 이 주제는 현시기 전민건강증진을 위한 세계보건정책실행에서 인류가 안고있는 도전들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고있다.

오늘 지구상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대, 특히 도시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20세기 50년대에 세계적으로 인구 500만명을 가진 도시가 6개밖에 없었다면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 수가 60개로 늘어났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도시에서 생활하고있다고 한다.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주택, 대기오염, 먹는물, 위생환경문제의 악화, 1차의료봉사수요의 증대 등 일련의 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다. 이로부터 세계보건기구는 도시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조건의 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세계보건의 날》에 도시건강문제라는 특색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이러한 사업은 변화되는 환경과 새 천년기의 보건발전추세에 맞게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세계적인 난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훌륭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며 도시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 《세계보건의 날》을 맞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주제에 따라 평양시와 평성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이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보건기구 성원국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ㄱ-01056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